

군산 옥구읍성 정비사업부지 내 추정 동헌 터 매장유산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4. 11



군 산 시



(재) 조선문화유산연구원
Jose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함

군산 옥구읍성 정비사업부지 내 추정 동헌 터 매장유산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024. 11



군 산 시



(재) 조선문화유산연구원
Joseo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 조사개요

1. 조사명 : 군산 옥구읍성 정비사업부지 내 추정 동헌 터 매장유산 시굴조사
2. 허가번호 : 제2024-1279호
3. 조사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417번지 일원
4. 조사면적 : 5,800㎡
5. 조사기간 : 2024.10.31 ~ 2024.11.18(실조사일수 6일)
6. 조사기관 :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7. 사업시행자 : 군산시
8. 조사단 구성

조사단장 : 이0구(조선문화유산연구원장)
책임조사원 : 차0국(조선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조사원 : 이0완(조선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준조사원 : 조0라(조선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 이0창(조선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9. 조사목적

이번 조사는 기존 조사와 고지도 등을 통해 옥구읍성 동헌 터로 추정되고 있는 곳에 대한 시굴조사로, 군산시는 옥구읍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을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옥구읍성 동헌 터에 대한 정확한 성격 및 범위, 조성시기 등을 파악하여 향후 옥구읍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활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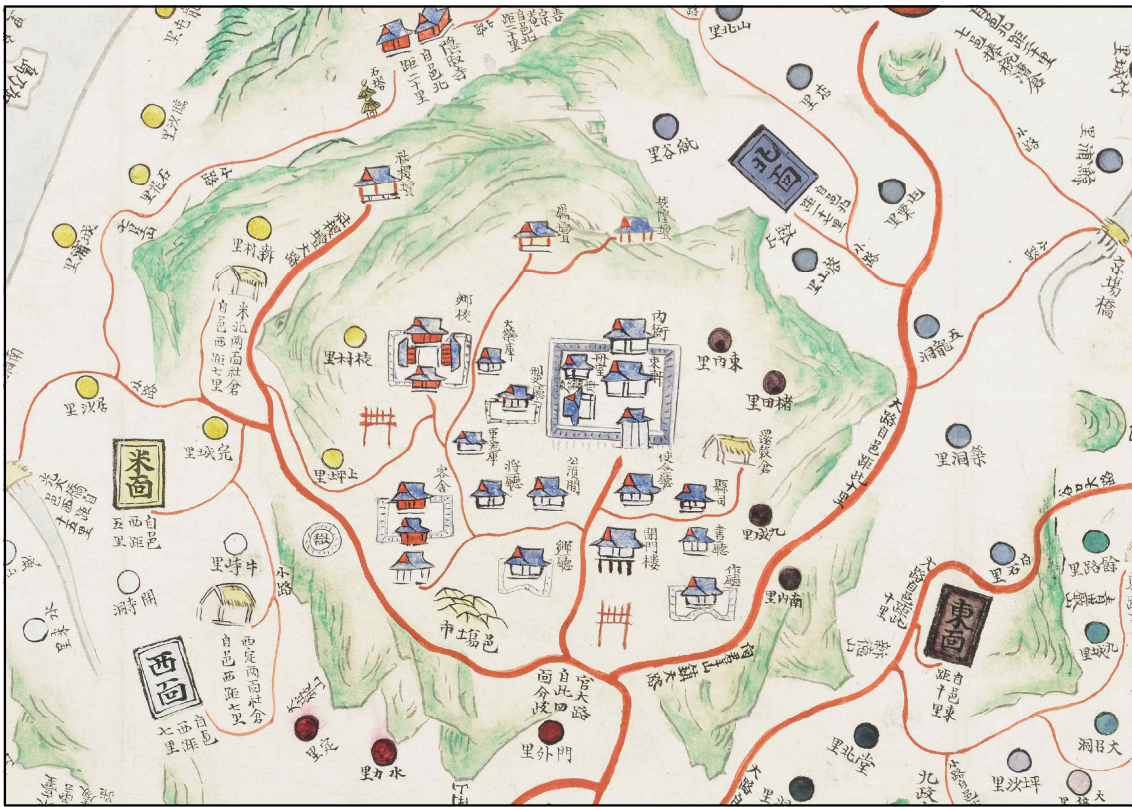
10. 조사경위

조사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옥구읍성은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성곽의 문지는 동·서·남 3개소가 존재하며, 옹성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문헌비고』에는 4개소의 옹성이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옥구읍성의 축성기록을 보면, 세종 21년(1441)에 옥구현을 설치하면서 성을 쌓고 현내를 방위하였다고 한다. 이후 『동국여지승람』에는 중종 19년(1524)에 성을 다시 쌓았으며, 둘레가 3,490척, 높이가 12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북쪽과 서쪽에는 길이 500m, 높이 4m 내외의 토축 성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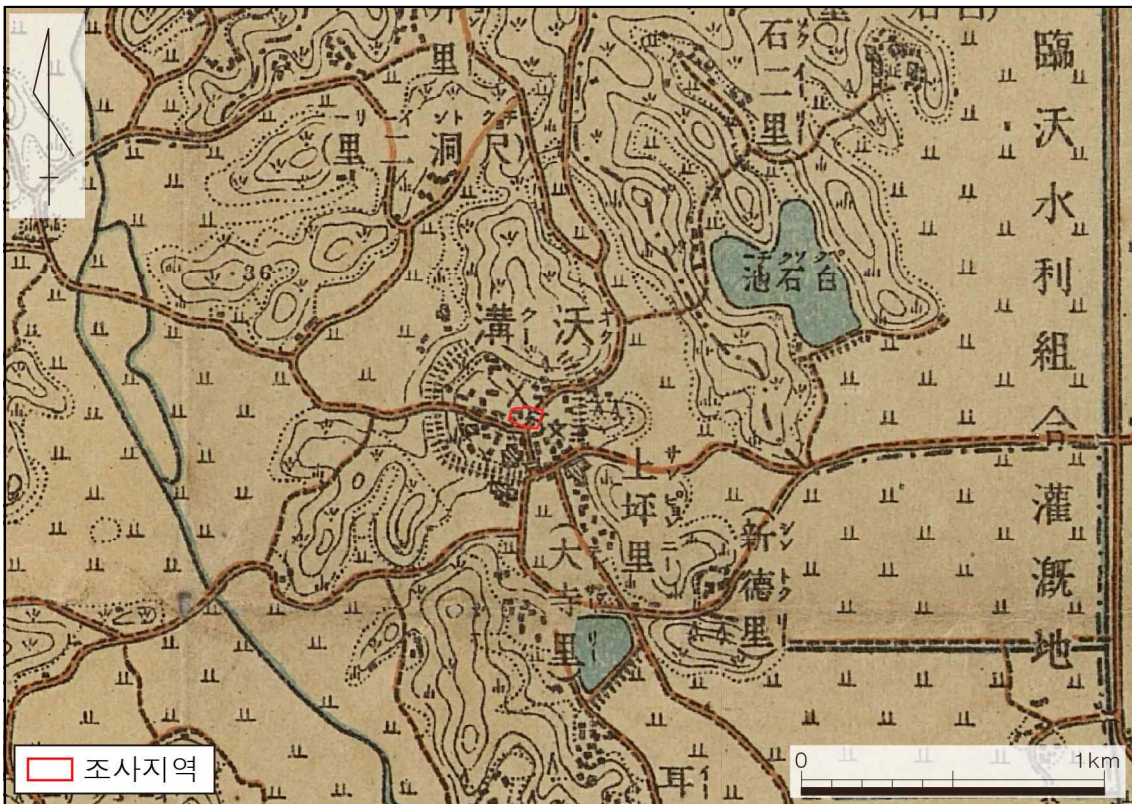
이러한 옥구읍성은 다양한 조사가 실시된 바 있는데, 먼저 2010년에 옥구향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¹⁾. 조사결과, 성적으로 보이는 석재들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남문지 및 객사지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2017년에는 옥구읍성의 동쪽 성벽에 대해 긴급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조선시대 성벽의 축조기법 및 해자가 확인되기도 하였다²⁾. 이후 군산시에서는 옥구읍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굴조사를 계획하였으며, 2023년 옥구읍성 내아 및 객사터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³⁾. 조사결과, 담장, 기단, 적심, 배수로, 초석 등의 유구와 백자편, 토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어 1872년 지방도에 기록된 내아 및 객사와 관련된 흔적으로 추정되었다.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들과 더불어 옥구읍성의 ‘추정 동헌 터’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정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본원에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본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10월 31일에 착수하여 2024년 11월 1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1) 군산대학교박물관, 2010, 『군산 옥구 소도읍 옥성사업(옥구향교진입로 개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 군산대학교박물관, 2019, 『군산 옥구읍성 긴급발굴조사 보고서』.
 3)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3, 『군산 옥구읍성 내아 및 객사터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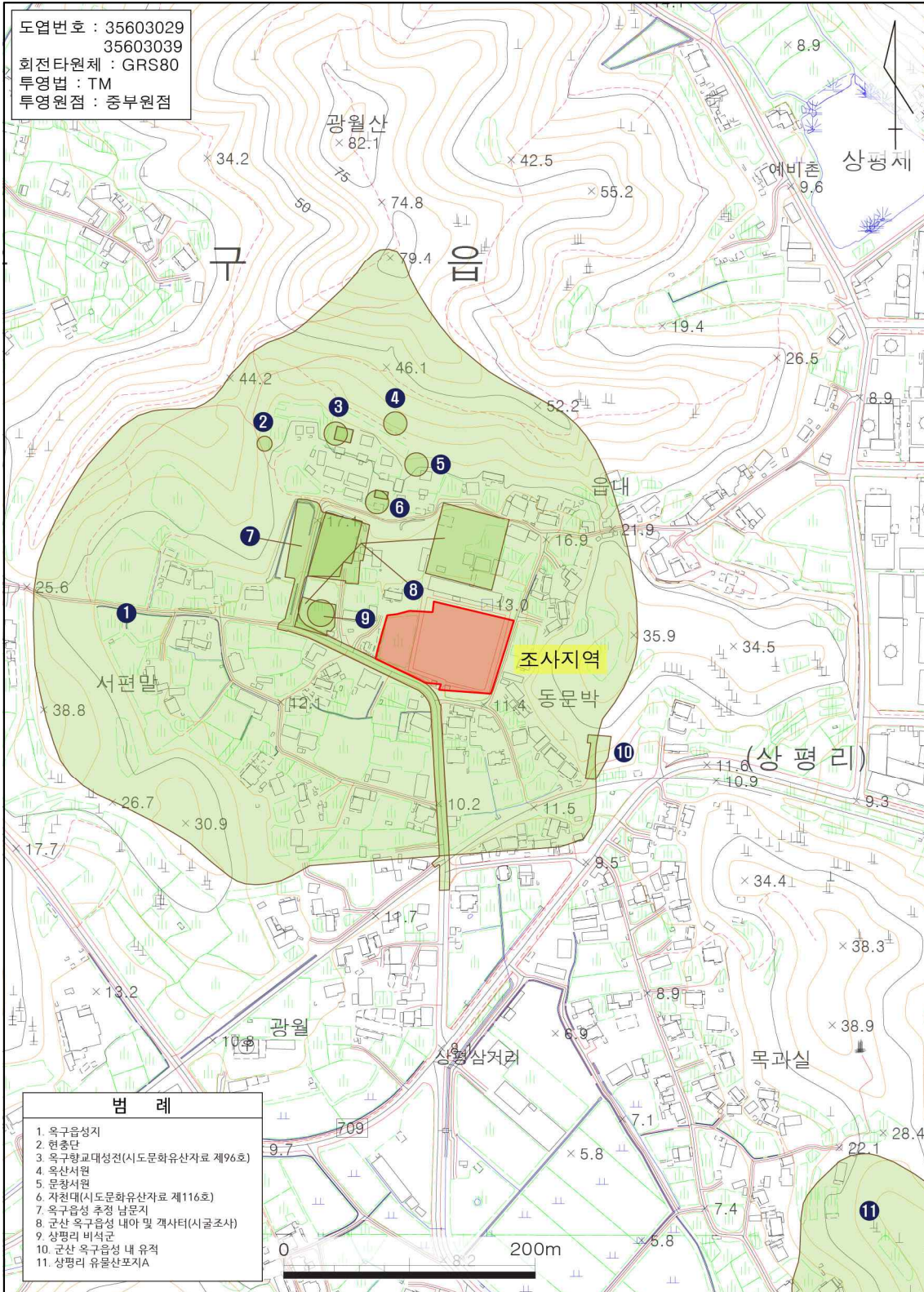
도면 1. 1872년 지방도(옥구현)



도면 2. 조사지역 근대지도(1918년 제작)



도면 3.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현황도(1:25,000)



도면 4. 조사지역 위치도(1:5,000)

II.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471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조사면적은 5,800㎡이다(도면 3·4).

조사지역이 위치한 옥구읍은 군산시의 서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발 50m 내외의 구릉지와 만경강과 접한 남쪽으로는 수산이곡평야, 옥봉평야, 선제평야 등의 넓은 해안 간척지가 형성되어 있다. 옥구읍 내에서도 조사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상평리 일대는 옥구읍의 중심지에 해당한다.

조사범위는 옥구읍성의 추정 동헌 터로 광월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줄기를 따라 조성된 옥구읍성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다(사진 1).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1872년 지방도에 기록되어 있는 옥구향교가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다(도면 1). 또한 조사지역의 서쪽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추정 객사 터 및 내아 터는 2023년 시굴조사가 실시되어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기단·적심·초석 등이 확인된 바 있다⁴⁾.

현재 옥구읍성의 추정 동헌 터에 해당하는 지역은 2008년에 폐교된 상평초등학교 일대로 금번 조사지역은 상평초등학교의 운동장 부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폐교된 이후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한 상태였다.



사진 1. 조사지역 위치도(항공사진)

4)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3, 『군산 옥구읍성 내아 및 객사터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시굴조사는 조사지역의 지형과 면적을 고려하여 규모 10m의 그리드를 구획하였고, 초등학교 내에 잔존하는 나무 및 구조물을 파악한 후 탐색트렌치를 설정하였다. 탐색트렌치의 규모는 너비 2m, 길이 20~30m이며, 총 14개의 탐색트렌치를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일부 트렌치는 확장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탐색트렌치는 편의상 서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다(도면 5).

트렌치조사를 통해 확인된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1~3Tr.와 4~14Tr.로 구분된다(사진 2). 먼저 1~3Tr.는 깊이 20~65cm 내외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층위는 암갈색사질점토(표토층) - 적갈색사질점토(복토층) - 기반층 순으로 확인된다.

4~14Tr.는 깊이 20~80cm 내외이며, 깊이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층위는 황색모래(운동장) - 암갈색사질점토 + 적갈색사질점토(운동장 조성층) - 암갈색사질점토(후백제~조선시대문화층) - 기반층 순로 확인된다. 암갈색사질점토층에서는 후백제~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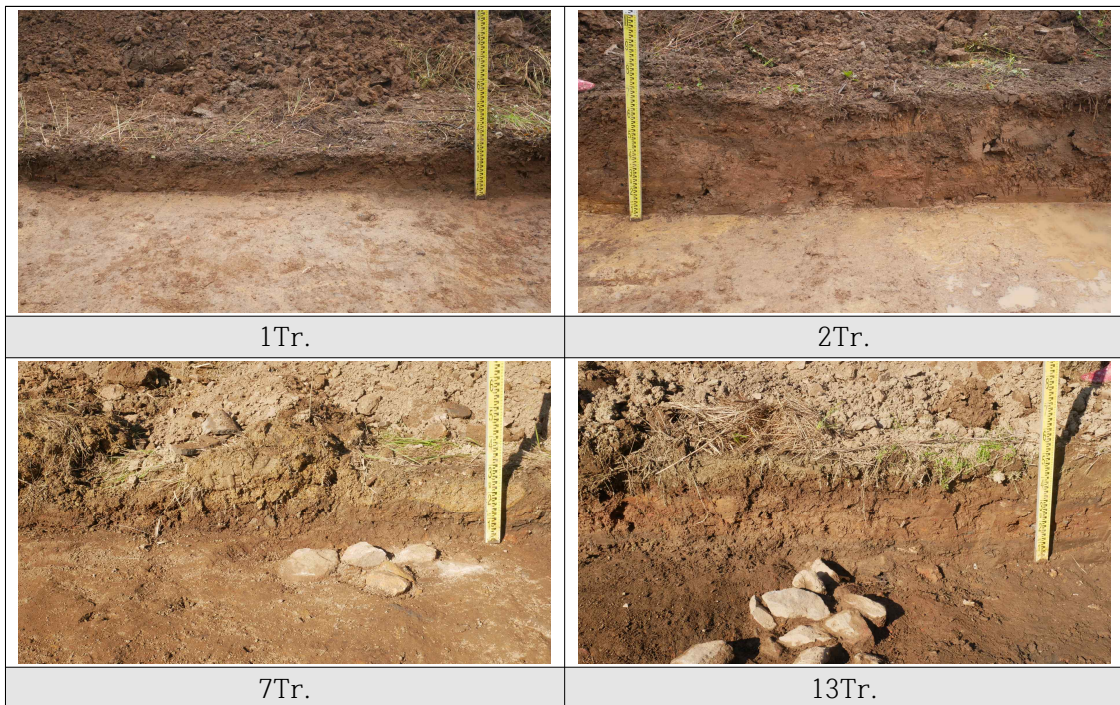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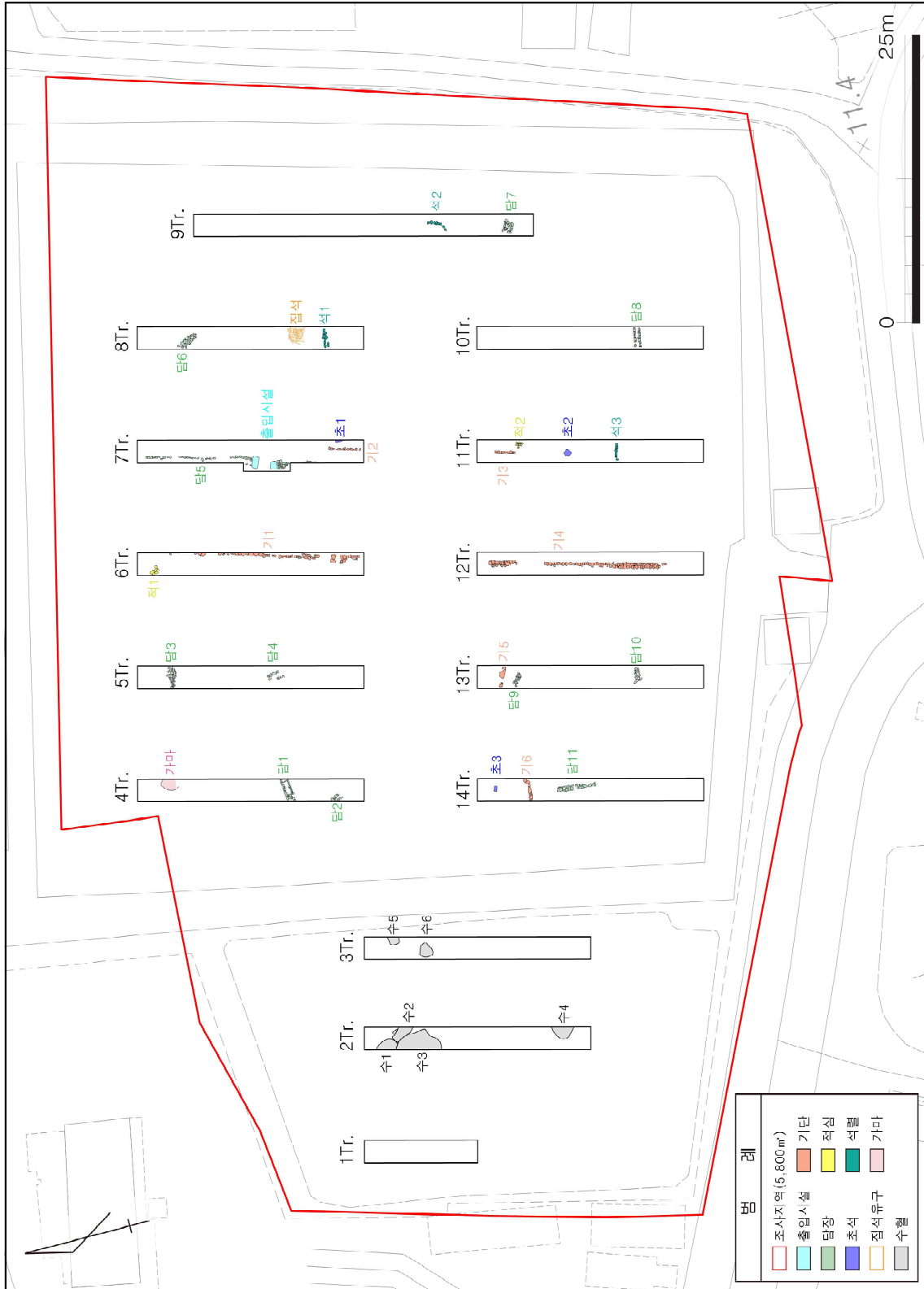


사진 2. 조사지역 퇴적양상

위와 같은 층위를 바탕으로 실시한 트렌치 조사결과, 출입시설 1기, 기단 6기, 담장 11기, 초석 3매, 적심 2기, 석렬 3기, 집석유구 1기, 가마 1기, 수혈 6기 등이 조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면 5. 시굴조사 현황도

1. 출입시설

출입시설은 7Tr.에서 확인되었다. 출입시설은 길이 69~104cm, 너비 45~54cm, 두께 25cm 내외의 규모를 가진 비교적 다듬어진 초석을 나란히 놓아 조성하였다. 출입시설의 폭은 150cm이며, 출입시설에 사용된 석재의 양옆으로는 너비 75cm 내외의 담장이 축조되어 트렌치 경계 밖으로 이어지고 있다.

2. 기단

기단은 6·8·11~14Tr.에서 각각 1기씩 총 6기가 확인되었다. 기단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 주를 이루며, 1호와 4호, 2호와 3호 기단이 각각 동일한 축선을 보이며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다. 기단의 축조는 길이 20~38cm, 너비 15~28cm, 높이 15cm 내외의 윗면이 판판한 할석을 사용하여 1열로 조성하였으며, 1·4호 기단에서 일부 2열로 시설한 곳도 확인된다. 기단의 규모는 1·4호가 14~18m로 가장 크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단들은 2~2.8m 내외로 확인되었다.

3. 담장

담장은 4·5·7~10·13·14Tr.에서 총 11기가 확인되었다. 담장의 장축방향은 출입시설의 초석에 잇대어 북동-남서 방향으로 축조된 5호 담장을 비롯해 동-서, 남-북, 북서-남동 등의 장축방향이 확인된다. 담장의 축조는 20cm 내외의 할석을 외측으로 맞춘 후 내부에 석재와 흙을 채워 넣었으며, 규모는 길이 2~3.4m, 너비 45~75cm 내외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트렌치 경계 밖으로 이어지고 있다.

4. 초석 및 적심

초석은 7·11·14Tr.에서 3매가 확인되었다. 초석의 규모는 길이 45~65cm, 너비 24~45cm 내외이며, 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을 띠고 있다. 그 중 1호 초석은 트렌치에 걸쳐 일부만 확인되었는데, 2호 기단의 내측에 자리하고 있어 하나의 건물지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적심은 6·11Tr.에서 총 2기가 확인되었으며, 적심 내부 석재들이 일부 유실된 상태이다. 적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내부에 크기 17~25cm 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규모는 직경 63~77cm 내외이다.

5. 석렬

석렬은 8·9·11Tr.에서 총 3기가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호형에 가깝게 진행하는 2호를 제외하면 모두 북서-남동이다. 석렬의 축조는 약 25cm 크기의 할석을 한쪽 면

을 맞춰 축조하였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180~200cm, 너비 25cm 내외로 대부분 트랜치 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7. 집석유구

집석유구는 8Tr.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1호 석렬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15cm 크기의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정연하게 면을 맞춘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잔존규모는 길이 124cm, 너비 140cm 내외이며, 트랜치 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8. 가마

가마는 4Tr. 상단부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가마는 대부분 유실되어 바닥면 일부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환원된 바닥면을 중심으로 피열흔이 확인된다. 트랜치 중앙부에서는 가마의 요전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재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가마의 장축방향은 남-북에 가까우며, 잔존규모는 길이 130cm, 너비 110cm 내외이다.

9. 수혈

수혈은 2·3Tr.에서 총 6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트랜치 경계에 걸쳐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원형 또는 말각방형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규모는 120~390cm 내외이다. 내부에는 목탄 및 소토가 소량 포함되어 있다.



사진 3. 조사지역 원경(남쪽에서)



사진 4. 옥구읍성 향교 및 객사·내아 추정 터(上: 북동)



사진 5. 조사지역 전경(上: 북동)



사진 6. 1~3Tr. 전경(上: 북동)



사진 7. 4~14Tr. 전경(上: 북동)



사진 8. 출입시설 전경



사진 9. 출입시설 세부1



사진 10. 출입시설 세부2



사진 11. 1~4호 기단 전경



사진 12. 1호 기단 세부



사진 13. 4호 기단 세부



사진 14. 2호 기단 및 1호 초석



사진 15. 3호 기단 및 2호 적심



사진 16. 5호 기단



사진 17. 1호 담장



사진 18. 5호 담장(남서쪽)



사진 19. 5호 담장(북동쪽)



사진 20. 6호 담장



사진 21. 7호 담장



사진 22. 8호 담장



사진 23. 9호 담장



사진 24. 11호 담장



사진 25. 2호 초석



사진 26. 1호 석렬



사진 27. 2호 석렬



사진 28. 3호 석렬



사진 29. 1호 집석유구



사진 30. 1호 가마



사진 31. 1~3호 수혈



사진 32. 5·6호 수혈



사진 33. 안내판 설치 및 안전조치



사진 34. 안전조치



사진 35. 유구 보존조치1



사진 36. 유구 보존조치2



사진 37. 유구 보존조치3



사진 38. 복토 후 전경1



사진 39. 복토 후 전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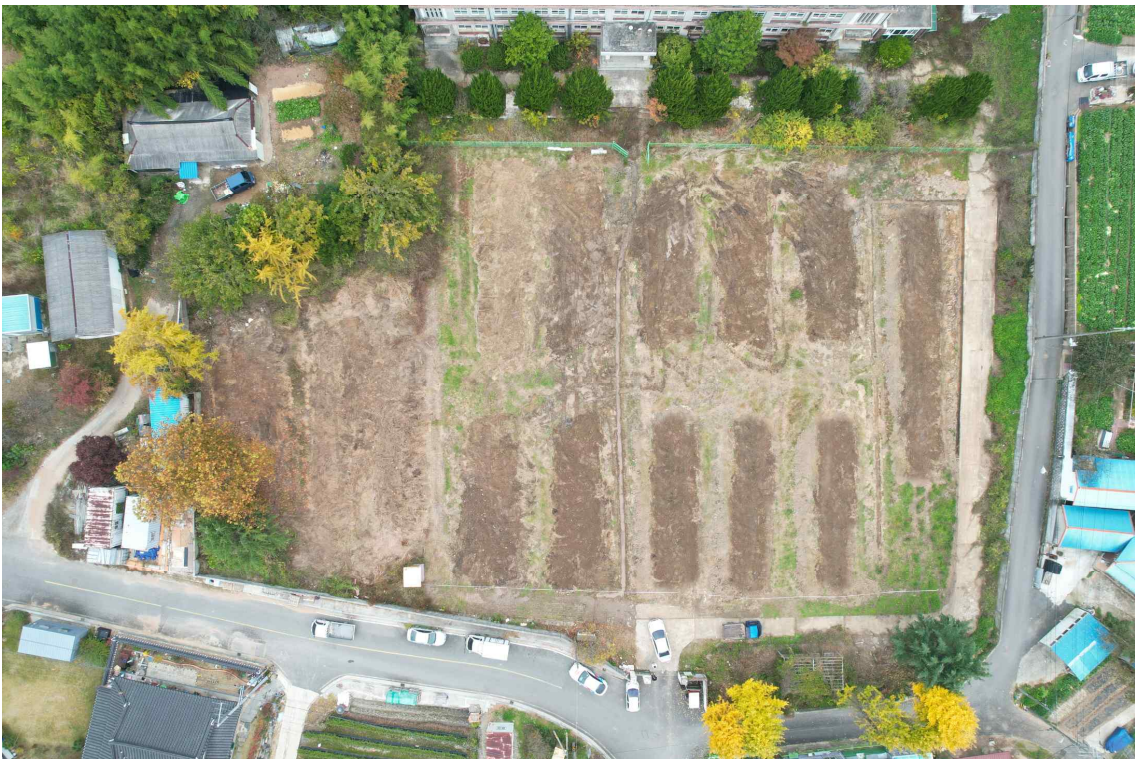


사진 40. 복토 완료 후 전경

Ⅲ. 조사성과

이번 시굴조사는 옥구읍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조사면적은 5,800㎡이다. 조사지역은 1872년 지방도에 표기되어 있는 동헌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북서쪽으로는 옥구향교가 위치하며, 서쪽과 북쪽에서 각각 객사 및 내아와 관련된 유구가 일부 조사된 바 있다. 시굴조사 결과, 출입시설 1기, 기단 6기, 담장 11기, 초석 3매, 적심 2기, 석렬 3기, 집석유구 1기, 가마 1기, 수혈 6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조사성과는 아래와 같다.

1. 동헌의 동측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출입시설 및 담장이 확인되었다. 7Tr.에서 확인된 출입시설과 5호 담장은 서로 잇대어 조성되어 동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규모만 20m에 달하며, 트렌치 경계 밖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큰 규모의 담장은 1872년 지방도에서 동헌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에서 확인되며, 그 간 조사지역이 동헌 터로 비정되어 온 것을 봤을 때, 옥구읍성의 동헌과 관련된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건물지와 관련된 기단 및 담장, 초석·적심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유구들은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위치하는데, 이 중에서 1호 기단과 4호 기단, 2호 기단과 3호 기단은 동일한 축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대략적인 건물지의 형태 및 규모를 가늠케 한다. 기단과 담장은 동·서·남·북의 장축방향을 따라 축조된 일반적인 형태와 이러한 경향을 따르지 않는 독특한 장축의 것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양상은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들이 옥구읍성 축조 이후 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에도 조성되어 이어져 왔음을 시사하며, 퇴적토 내에서 확인되는 후백제~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기와편 등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3. 이번 시굴조사에서는 옥구읍성 내에 자리한 동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물지가 오랜 시기에 걸쳐 존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후 정밀발굴조사가 실시된다면 옥구읍성 내에 자리했던 다양한 건물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옥구읍성의 향후 보존 및 정비,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토유물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 재질별 구분 | 주요 출토 유물 | 수량 | 비 고 |
|---------|----------|----|-----|
| 1. 금속 | • | | |
| 2. 옥석유리 | • | | |
| 3. 토도 | • | | |
| 4. 골각 | • | | |
| 5. 목죽초찰 | • | | |
| 6. 기타 | • | | |
| 계 | | | |

1-2 세부목록

| 일련 번호 | 유물명 | 수량(점) | 유 물 목 록 | | | | | 사진 번호 | 비고 |
|----------|-----|-------|---------|----|---------|-------|------------|----------|----|
| | | | 분 류 | | 크 기(cm) | | | | |
| | | | 재질 | 시대 | 기고(길이) | 구경(폭) | 저경 (두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2. 출토유물 사진

1.

2.

3.

조사단의견서

1. 조사명 : 군산 옥구읍성 정비사업부지 내 추정 동헌 터 매장유산 시굴조사
2. 허가번호 : 제2024-1279호
3. 조사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471번지 일원
4. 조사면적 : 5,800m²
5. 조사기간 : 2024.10.31. ~ 2024.11.18.(실조사일수 6일)
6. 조사기관 :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7. 사업시행자 : 군산시

8. 조사목적 및 경과

이번 조사는 기존 조사와 고지도 등을 통해 옥구읍성 동헌 터로 추정되고 있는 곳에 대한 시굴조사로, 군산시는 옥구읍성의 보존·정비 및 활용을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옥구읍성 동헌 터에 대한 정확한 성격 및 범위, 조성시기 등을 파악하여 향후 옥구읍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활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옥구읍성은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성곽의 문지는 동·서·남 3개소가 존재하며, 옹성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문헌비고』에는 4개소의 옹성이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옥구읍성의 축성기록을 보면, 세종 21년(1441)에 옥구현을 설치하면서 성을 쌓고 현내를 방위하였다고 한다. 이후 『동국여지승람』에는 중종 19년(1524)에 성을 다시 쌓았으며, 돌레가 3,490척, 높이가 12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북쪽과 서쪽에는 길이 500m, 높이 4m 내외의 토축 성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옥구읍성은 다양한 조사가 실시된 바 있는데, 먼저 2010년에 옥구향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¹⁾. 조사결과, 성적으로 보이는 석재들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남문지 및 객사지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2017년에는 옥구읍성의 동쪽 성벽에 대해 긴급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조선시대 성벽의 축조기법 및 해자가 확인되기도 하였다²⁾. 이후 군산시에서는 옥구읍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굴조사를 계획하였으며, 2023년 옥구읍성 내아 및 객사터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³⁾. 조사결과, 담장, 기단, 적심, 배수로, 초석 등의 유구와 백자편, 토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어 1872년 지방도에 기록된 내아 및 객사와 관련된 흔적으로 추정되었다.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들과 더불어 옥구읍성의 ‘동헌 터’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정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본원에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본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10월 31일에 착수하여 2024년 11월 18일까지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9. 조사결과 및 성과

이번 조사가 진행된 지역은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471번지 일원으로 현재 폐교된 상평초등학교에 해당하며, 조사면적은 5,800㎡이다.

조사지역은 옥구읍성의 추정 동헌 터로 광월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줄기를 따라 축조된 옥구읍성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치우쳐 자리하고 있다.

시굴조사 결과, 출입시설 1기, 기단 6기, 담장 11기, 초석 3매, 적심 2기, 석렬 3기, 집석유구 1기, 가마 1기, 수혈 6기 등이 확인되었다.

출입시설은 7Tr.에서 확인되었다. 출입시설의 조성은 비교적 다듬어진 초석 2매를 1.5m 간격으로 나란히 놓아 조성하였다. 초석의 양 옆으로는 너비 75cm 내외의 5호 담장이 잇대어 축조되어 있으며, 트렌치 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기단은 6·8·11~14Tr.에서 총 6기가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 주를 이루며, 1호와 4호, 2호와 3호 기단이 각각 동일한 축선을 보인다. 기단은 규모 20~40cm 내외의 할석을 사용하여 조성하였다.

담장은 4·5·7~10·13·14Tr.에서 총 11기가 확인되었다. 담장의 장축방향은 출입시설의 초석에 잇대어 북동-남서 방향으로 축조된 5호 담장을 비롯해 동-서, 남-북, 북서-남동 등의 장축방향이 확인된다. 규모는 너비 45~75cm 내외이다.

초석 및 적심은 6·7·11·14Tr.에서 확인되었다. 초석은 3매로 방형 또는 장방형의

1) 군산대학교박물관, 2010, 『군산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옥구향교진입로 개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 군산대학교박물관, 2019, 『군산 옥구읍성 긴급발굴조사 보고서』.
 3)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3, 『군산 옥구읍성 내아 및 객사터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형태이다. 적심은 2기가 확인되었으며, 적심 내부 석재들이 일부 유실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직경 63~77cm 내외이다.

가마 및 수혈은 2~4Tr.에서 확인되었다. 가마는 4Tr. 상단부에 위치하며, 대부분 유실되어 환원된 바닥면과 피열흔만 확인된다. 수혈은 총 6기로,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말각방형으로 추정된다. 내부에는 목탄 및 소토가 소량 포함되어 있다.

금번 조사에서는 출입시설을 비롯하여 기단 및 담장, 초석, 적심 등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건물지의 규모 및 양상 등을 봤을 때, 1872년 지방도에 표기된 옥구읍성 동헌과 관련된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기단 및 담장은 다양한 장축방향을 보이며, 일부 중복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조사지역 내서 확인된 유구들이 옥구읍성 축조 이후 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부터 조성되어 이어져 왔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상은 서쪽에 위치한 1~5·13·14Tr.의 퇴적토 내에서는 후백제 기와편이 주를 이루고, 동쪽에 해당하는 6~12Tr. 퇴적토에서는 조선시대 기와편이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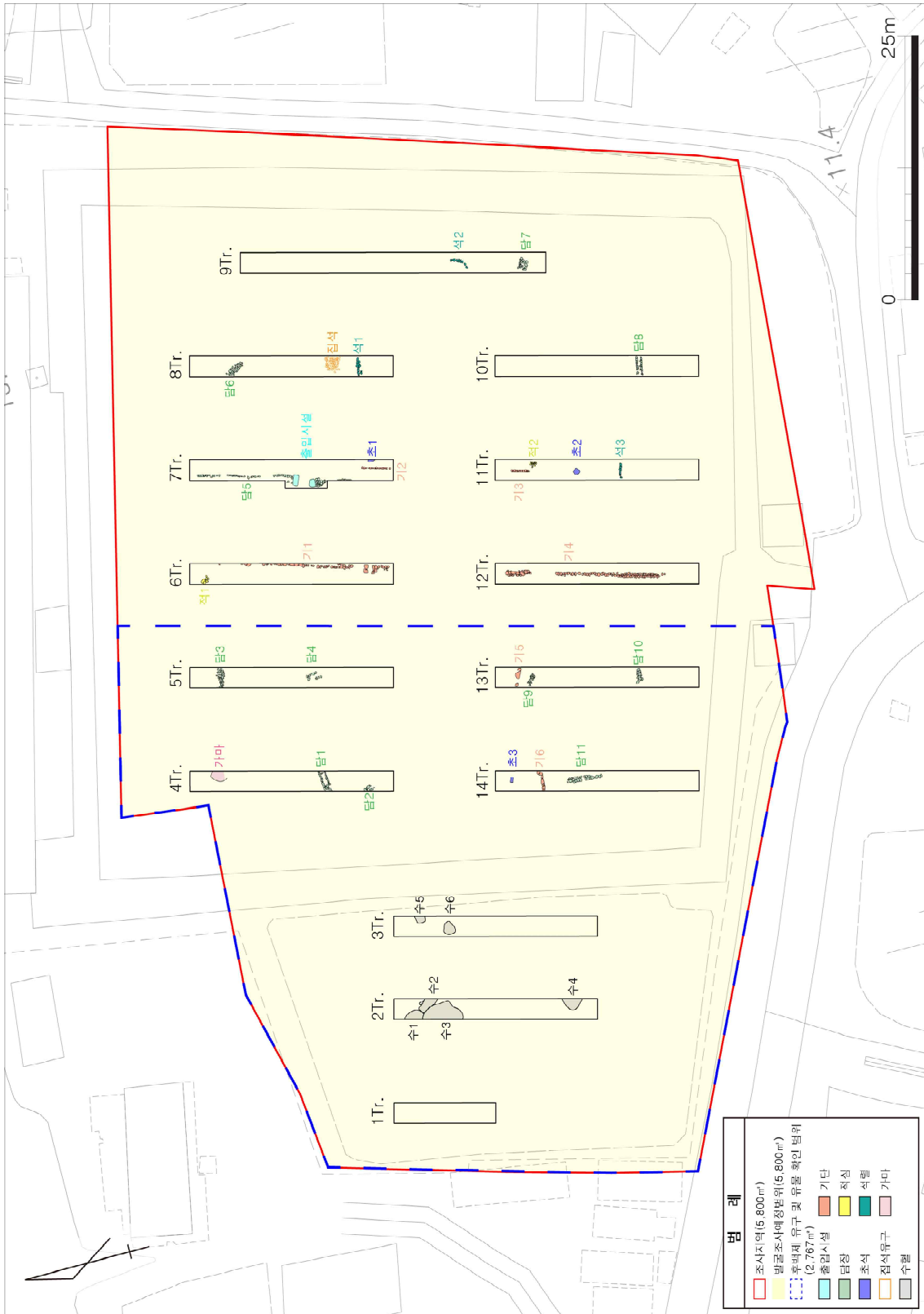
10. 조사단 의견

이번 옥구읍성 동헌 터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14개의 탐색트렌치 전반에 걸쳐 출입시설·기단·담장·초석·적심·석렬·집석유구·가마·수혈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1월 12일에 학술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후백제 유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사지역의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헌 터로 판단되는 동쪽지역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조사단에서는 이번 시굴조사를 통해 유구가 확인된 범위에 대해서 정밀발굴조사(5,800㎡, 도면 1)를 실시하여 유구의 정확한 성격과 범위, 축조시기 등을 밝혀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후백제와 관련성이 높은 조사지역의 서쪽에 대한 정밀발굴조사(2,767㎡, 도면 1)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금번 조사지역과 기존 조사지역 주변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유구의 범위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도면 1. 발굴조사 전환범위